

## 小說教育에 있어서 言語의 問題

金 東 煥  
(國語教育科)

### I. 序 論

國語教育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文學教育의 위상 문제인 듯 싶다.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문학교육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하위영역에 속한다는 견해. 예컨대 5차교육과정을 보면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1) 言語使用機能의 伸張, 2) 言語使用의 知的 社會的 情緒的 측면의 伸張, 3) 문학에 대한 기초지식과 문학작품의 이해 및 감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감안할 때 문학의 재료는 언어이고 문학작품 감상 기능의 신장이 궁극적으로는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에 기여하므로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하위영역이라는 것이다.<sup>1)</sup>

둘째, 문학을 表現, 理解 기능을 신장시키는 보조지식으로 보는 견해는 자체내에 이미 문학의 기능을 지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기에 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론을 낳는다. 국어교육의 목표는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어교과서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과학 논문이 국어교재로 선택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문학은 言語의 構造物이란 측면에서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외의 부분은 藝術教科로 독립시켜 가르치는 것이 좋다.<sup>2)</sup>

셋째,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문학적 요소는 범상한 일상인의 언어생활에도 풍부하게 발견되는

1) 盧命完, 國語教育論(한샘, 1988), p. 22.

2) 李庸周, “國語教育에 있어서 文學의 位置”, 鳳竹軒 朴鵬培博士 回甲紀念論文集, 培英社, 1986.

丘仁煥의 <文學教育論>(三知院, 1988)에서도 이러한 논지가 중요한 입각점을 이루고 있으나 저자들이 제시하는 논거에 대해서는 또다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굳이 <文學教育論>의 논지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독립된 교과로서의 문학교육의 영역을 상정하는 것은 正體性 확보라는 당위성을 너무 앞세운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3) 金大幸, “言語使用의 構造와 國語教育”, 國語教育 71. 72輯, 1990.

것이며 이 창조적 측면은 국어에서 언어사용의 방식을 개발하는 과정을 부여한다는 주장이 있다.<sup>3)</sup> 이 논리에 의하면 문학교육과 언어교육은 상보적으로 국어교육을 구성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위의 세 견해는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다른 논지를 개진하고 있는듯 보이거나 좀더 살펴보면 어떤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여기서 우리는 이 다른 견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하게 된다. 우선 세 주장은 모두 문학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을 관련짓고 있다. 특히 이들 견해는 문학이 언어예술이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첫째와 셋째 견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둘째 견해는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는 문학 교육의 범주 문제가 단순히 원론적 측면이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에서 야기되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가지 견해에는 분명 공분모가 있다. 이 공분모에서 시작하여 문학에서 언어란 무엇인가를 좀더 천착해 들어간 연후에 범위확정 작업을 해야 위의 논쟁이 소모전으로 확산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국어학자의 입장에서 문학은 생소한 것이고 국문학자의 입장에서 어학은 생소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서로의 영역 규정을 위해서 양자를 포괄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종래 연구자들은 정확한 개념, 범주 규정을 하고 싶다는 욕심과 강박관념때문에 생소한 상대방의 견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감이 없지 않고 이 일방적 해석은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 경멸감조차 낳아 논의가 자칫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든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업적을 검토, 위의 논쟁에서 나타나는 상호간의 이해의 미비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소설과 국어교육의 관계중 한 면을 서술하고자 한다. 중요한 문제는 경계선 구기가 아니라 국어라는 공분모 위에서 각 영역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데 있을 것이다.

## II. 文學에 대한 誤解와 그 原因

Jakobson의 意思疏通에 관여하는 언어기능 이론은 그 명쾌함 때문에 언어를 설명하는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 언어는 指示的 기능, 感情表示의 기능, 能動的 기능, 親交的 기능, 메타 언어적 기능, 詩的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문학은 이러한 기능 중 메시지 자체에 관심을 갖는 시

金大幸, "國語教育和「言語·使用·教育」", 師大論叢 40輯, 1990

적 기능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이미 Jakobson 자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거니와 야콥슨 이후의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위와같은 견해를 비판하고 문학 특히 소설은 일종의 談論으로서 위의 모든 의사소통 기능을 포괄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akobson과 Leech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배제되어야함을 주장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sup>4)</sup> 문학 이론 분야에서는 이미 문학이 메시지 중심의 언어라는 견해를 수십년 전에 극복했음에도 국어교육에서는 구태의연한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어 교육이 문학이나 언어학에 종속되지 말아야 하지만 진정한 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자의 지식이 상보적으로 작용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또하나의 오해를 살펴보자.

사실 언어사용에서 대상과 화자, 청자를 포함하는 맥락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언어교육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바로 맥락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생산적(혹은 창조적)언어사용은 문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언어사용의 모든 양상이 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창조적'이라는 용어가 '예술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문학이 창조적 사용의 대표로서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sup>5)</sup>

문학이 사용하는 創造的 언어가 日常言語에도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논리는 문학이 일상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학에는 일상언어의 다양한 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므로 그것의 이해는 국어 사용 능력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논자는 문학이 언어의 창조적 사용의 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국어교육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반론은 문학을 예술교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어교과서가 여러가지 종류의 논리적 문장과 여러가지 장르의 문학 작품을 수록하는 것이 언어 사용 전반에 걸친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sup>6)</sup> 견해 속에 이미 문학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은 理解의 영역의 하위범주인 '읽기' 영역의 일부분에 편입시키는 것은 무방하나 쓰기의 영역 즉 表現의 범주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sup>7)</sup>고 굳이 부정적 측면에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문학작품을

4) 崔永煥, "國語教育學 定立의 方向", 國語教育學研究 1輯, 1991, pp.7-11.

5) 앞의 글 p.11

6) 李庸周, 앞의 글

7) 李庸周, "國語教育的 根本的 改革에 關한 研究", 師大論叢 39輯, 1989, 12.

이해, 감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작품을 쓰는 것은 국어 교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문학 작품의 이해가 국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문학 작품을 쓰는 것도 또한 언어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문학작품을 읽기 때문에 이해, 감상은 필요하나 쓰는 사람은 극소수이므로 쓰기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어 교육의 핵심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언어사용 훈련을 위해 문학이 활용되는 것이라면 그동안 사람들이 읽어왔다거나 안 읽어왔다는 經驗論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이 노출해온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東西를 막론하고 文學 그 자체가 국(언)어교육의 전부이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교과내용의 한 부분이며 심지어는 그것이 국어교육 固有의 目標인 것처럼 착각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아직도 국어교육이 곧 문학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국어교육이 言語教育이라는 상식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례까지 있는 형편이다.<sup>8)</sup>

그간 우리 교육계는 문학이 갖는 재미와 효용성, 인기에 힘입어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효과를 갖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채 교과서 지문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왔다. 또 작가의 전기적 사실, 혹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 등 배경지식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잘 빛은 함아리” 취급을 해 현실의 언어와 유리시켜 버렸다. 언어 속에서 문학은 언어와 다른 그 무엇으로 신비화된 결과 스스로를 국어에서 단절시켜 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 문학작품에서 지식이나 정보의 측면이 문학의 언어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떤 구실을 하는가 혹은 양자가 어떤 관계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문학에서 창조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규정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여러 논문들이 문학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을 무조건 비판하기에 앞서 그 날카로운 지적의 속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의 성찰의 자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학에 대한 또다른 오해의 소지가 남아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自然科學 論文이 국어시간에 국어교사로 하여금 自然科學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倫理, 道德 또는 國史와 같은 특정 분야와 관련되면 이러한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하여 言(國)語學이나 문학이 되면 그 경계의 불분명성은 더욱 커진다.<sup>9)</sup>

8) 李庸周, “國語教育에 있어서의 文學의 位置”, pp. 319-320.

9) 앞의 글, p. 319.

自然科學과 같은 학문이나 音樂이나 美術과 같은 예술 자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따져서 그것이 국어교육의 領域에 드느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에 관한 知識의 傳授가 곧 국어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착각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국(인)어교육과 文學의 관계에서만 이러한 관점이 흐려져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sup>10)</sup>

문학의 질료인 언어는 다른 예술의 질료와는 전혀 다른 성질과 힘을 갖고 있다. 이 질료는 자연적 所興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구성된 말과 글이다. 말과 글은 벌써 객관화의 성질을 가졌고 記號體系와 對應의 원리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문에 비해 언어의 彫琢이 강조되는 詩조차도 평소에 사용하는 말보다 더 고차적인 형식으로 형상화되어 恒存과 지속성을 보유했다. 되더라도 그 언어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 가지는 객관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으로서의 시는 비예술적인 종류의 객관화, 다시 말하면 문학이라는 표제하에 포괄될 수 있는 광범한 정신적 창조의 영역에 밀접하게 접근하게 된다. 왜냐하면 非詩的인 작품과 詩的인 작품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고대 역사가의 설화술과 경전 보고와 복구인의 전설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문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sup>11)</sup> 따라서 문학은 예술적 속성을 갖고 있기는 하나 결코 다른 예술과 동일 범주에 넣을 수 없는 예술인 것이다. 이 지적은 김대행 교수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행해진 바 있다. 김대행 교수는 문학언어와 일상언어와의 넘나들을 주목하여 문학의 神秘化를 경계하는 논지를 세우고 있다.<sup>12)</sup>

그렇다면 문학에서 언어의 기능은 무엇인가? 김대행 교수의 논의는 문학과 언어의 경계선의 불분명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여기에 대한 대안이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김대행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창조적 언어는, 언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Jakobson의 시적 기능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견해는 현상학에서 우리 문학교육이 지양해야 할 형식주의의 이론에 맞닿아 있다. 이 이론을 강조할 경우 문학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송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의 시적 기능이 우리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풍부히 쓰이고 있음은 사실이나 畵言語生活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실재 부분은 미미하다. 그러므로 문학적 언어가 우리 일상언어에 풍부히 쓰인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이 문학언어와 일상언어의 근본적인 벽을 허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10) 앞의 글, p. 330

11) 崔惠實,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p. 32.

12) 이러한 논지가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문학사상사, 1992)를 들 수 있다.

쓰이는 死隱論 등을 문학의 차원에 놓음으로써 문학을 질적으로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창조적 언어의 개념은 시의 영역에서는 설득력을 갖지만 소설의 영역에서는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Saussure의 langue 중심의 언어학은 이미 국어교육에서 langage 중심으로 대체된 바 있는데도 여전히 김대행 교수는 이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문학교육을 폄하하는 국어교육논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오해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해당 국어교육논자의 탓으로 여겨진다. '도구과목'의 개념은 많은 보완과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Saussure의 가치중립적 언어학을 극복 못한 발상법이다. 국어교육이 기초언어학에 대한 비판으로 langage중심의 이론을 도입하였으나<sup>13)</sup> 아직 근본적으로는 기존 언어학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문학이 '창조적 언어' 개념으로 불충분하다면 문학의 언어는 일상 언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본인의 능력으로 이 관계를 완벽하게 규정짓기는 불가능하며 또한 현단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설정이 또다른 오해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논의의 범주를 소설과 언어와의 관계에 국한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여러 시도들이 모여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변별성이 확정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런 역량이 축적될 때까지 명쾌한 구분을 삼가는 것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 III. 文學의 質料로서의 言語의 性格

#### 1. “文學의 言語는 日常言語와 다르다”에 대하여

문학언어와 일상언어를 구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형식주의자들의 낯설게 하기(defamilization)의 개념이다. 슈클로프스키에 의하면 예술의 목적은 우리를 강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흔히 지각작용은 지나치게 自動化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은 지각작용을 방해하거나 최소한 그 방해의 기법에 주의를 쏟게 하는 기술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 자동화를 억제한다.<sup>14)</sup>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말하는 언어를 거의 듣지 않는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만 주의깊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慣習化된 언어사용 때문에 우리의 세계에 관한 인식은 자동화되고 단순한 인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예술가가 대항해서 투쟁해야 할 것은

13) 朴壽慈, “國語科 教育에 대한 體系的 接近의 試論”, 國語教育學研究 1輯, 1991

14) 슈클로프스키 외(한기찬 역),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월인재, 1980) p.23

바로 이 일상과 습관의 흡인력이다. 대상을 습관적 문맥에서 분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들을 함께 묶음으로써 시인은 常套적 표현과 거기에 따르는 기계적 반응에 치명적 일격을 가해서 독자로 하여금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sup>15)</sup>

그런데 이 주장이 일반적으로 극단화되면 예술은 어떤 대상의 예술성을 경험하는 방법이며 그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시는 의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한다는 식의, 즉 문학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다른 창조적 언어라는 편협한 논리가 나오게 된다. 이는 야콥슨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이미 오류로서 인식된 것으로 언어의 기능 중에서 문학언어는 傳言이 지시 대상과 맺는 관계가 아니라 전언자체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記標와 記意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만해의 시에 나타나는 은유를 분석해 보자.

타고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기서 '나의 가슴'과 '등불'은 일상 언어에서는 아주 이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등불은 물체의 영역이며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감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가슴은 정신의 영역이며 객체화, 계량화가 불가능하다.<sup>16)</sup> 이 두 요소는 한 문맥에 수용됨으로써 서로의 의미영역을 확대시킨다. 구체단어와 추상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각 단어의 의미에 새로운 자각을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의미란 창조가 아니다. 여기서 창조적 變形行爲는 우리 주위의 세계에 밀도를 더해줌으로써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력을 날카롭게 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환기는 우리의 언어생활에 단순한 심미적 가치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언어의 規範을 환기시켜 준다. 독자가 일상 언어로부터 逸脫했다고 느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언어의 규범(norm)이다. 평소의 언어생활에서 체득한 일상언어의 규범이 없이 어떤 언어대상을 문학이라고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일탈이야말로 규범, 관습, 낯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自然科學論文의 知識이 國語教育에 의미없듯이 文學의 知識도 國語教育에 의미가 없

15) 빅토르 어일리치(박겨용 역),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과 지성사, 1983) pp.226-227.

16) 金容稷, 韓國近代詩史, (새문사, 1983) pp.464-468.

다.”에 대하여

언어를 담론으로 이해하려는 이론은 추상적 객관주의의 언어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추상적 객관주의 언어학의 대표자로 소쉬르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언어를 言語活動(langage), 형식들의 체계로서의 言語(langue), 개인의 言語行爲(parole)로 구분하고 langue가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개인의식에 앞서 존재하고 규범적으로 동일한 언어형식들의 안정된 체계이다. 여기서 언어의 법칙들은 언어체계의 내부에서 언어기호들 사이를 연계하는 특유한 언어학의 법칙들이다. 즉 추상적인 langue는 parole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어떤 말을 구체화하는 것은 본래 자기를 실현하고 있던 역사적 현실의 맥락 속에서 그 말을 위치시키는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말은 본래가 대화적인 것인데 소쉬르의 언어학에 의하면 언어는 항상 獨白的 發話를 넘어설 수 없다. 언어는 언어에 의해 성립되고 의식도 언어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다. 또 經驗은 언어의 작용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으며 언어 밖에서 그런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경험은 표현가능한 것, 즉 잠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 의지의 활동도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표현가능하다라는 이 특성을 경험의 본질을 상실함이 없이 경험으로부터 분리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경험을 보거나 느낄 수 없고 다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성찰의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을, 이해된 다른 기호들로 구성된 어떤 맥락 속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결국 언어는 한 개인의 의식, 사고, 경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모든 언어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개인들 사이의 相互作用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어휘, 문법 등의 기본체계는 거의 변화하지 않으나 개인들 사이의 담론의 양태는 무엇보다도 집단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조직된 방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한 그들의 상호작용의 직접적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예를 들어 階層的 요인은 언어적 의사소통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말투, 발화요령 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각 시대와 각 사회집단은 일상생활에서 각기 고유한 발화형태들을 지녀왔다.<sup>18)</sup> 결국 담론으로서 언어는 사회적 상호관계의 구체적 형태, 인간의 사상, 이데올로기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언어에는 사회계층의 사상이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이론, 언어사용(langage)이론을 국어교육학에서 승인한다면 (이것은 국어교육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 이론의 기본조건인 언어와 사고의

17) M. 바흐진, V.N. 볼로쉬노프(송기환 역),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1987) pp.41-53.

18) 앞의 책, pp.31-32.



밀접한 관련도 승인해야 하나 추상적 객관주의의 언어학에서 言語現象은 이데올로기, 사고와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의식에 받아들여진 가변적 사고가 자체의 법칙에 의해 완결된 언어의 체계 속에 스며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어교육학이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을 꾀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규범언어학의 사고에 얽매어 있다는 점이다. 언어사용 능력이란 담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談論表現 및 理解活動을 수행하는 능력, 즉 담론의 문법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19)</sup> 그런데 담론에 용해되어 있는 역사,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분리하겠다는 것인가?

사실 과학 논문이 국어책에 인용되었을 때 과학을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말은 옳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면 수학과 자연과학은 하나의 대상(사물)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문과학의 논문이 국어교과서에 채택되었을 때 역사, 철학의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人文科學 혹은 精神科學은 기본적으로 인간존재를 다루기 때문이다. 인간존재는 他者와의 관계 밖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 인간은 나를 타자에게 드러냄으로써만 타자의 도움에 의해서만 나 자신을 인식하고 나 자신이 된다. 여기서 지식은 그 본질상 의사소통이며 대화적이 된다. 인간존재를 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담론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sup>20)</sup> 인문과학의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가가 내리는 가치평가에 반응하면서 능동적인 담론의 작용을 일으킨다. 인문과학의 지식은 자연과학의 지식과 달리 認識의 對象이 아니라 理解와 解釋의 대상이다. 인문과학에서 어떤 해석은 단순명료한 정보가 아니라 주체가 타자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므로 그 해석과 이해의 과정이 훨씬 복잡하다. 따라서 과학에서 지식과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은 쉽게 분리되나 인문과학에서 지식과 이해의 과정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과장해서 말하면 이해의 과정이 곧 지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과학의 텍스트를 놓고 그 속의 지식은 가르치지 말고 언어기능만을 가르치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 IV. 談論으로서의 小説과 小説教育

##### 1. 談論으로서의 小説

담론에 있어서 언술은 고정된 문장과는 달리 發話者 및 言語의 대상과 연관을 맺으며 그전

19) 朴壽慈, 앞의 글, p. 41.

20) 츠베탕 토도로프(최현무 역), 바흐전: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글방, 1988〉 pp. 33-35.

에 생산된 언술들과 상호작용한다. 실상 우리가 실제의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결코 그 이전에 존재했던 것, 주어진 것, 이미 준비된 어떤 것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물론 우리에게 언어사용의 지표로서 고정적이고 추상적인 langue의 존재가 필요하나 이 langue는 항상 실제의 대화관계에서 활용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는 langue가 아니라 언어사용(langage)능력의 신장이 추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두 社會的 因子가 있고 그 사이에 전달될 X라는 傳言이 있다고 하자. 현실에서 A와 B의 관계는 끊임없는 변형과 형성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관계는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변모되고 있다. 傳言은 A와 B사이의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양자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그 의미가 형성된다.<sup>21)</sup> 그런데 소설장르는 어떤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인물들이 주고받는 담론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고정된 언어구조물이거나 대상으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작품 내부에 나타나는 창조자와 수신자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형식이다.

소설은 한 작가의 單線的인 언어서술이 아니다. 소설에서 작가는 자신과 물질적으로 구별되는 등장인물을 창조해 낸다. 이 과정은 소설가가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感情移入의 단계를 거쳐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찾는 역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작가는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으로 어떤 등장인물을 창조하지만 그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와 특정한 계층의 개별적 인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작가의 개성과 지배력의 밖에 존재한다. 이는 작가의 세계관이 당대 현실에 기초를 둔 등장인물의 세계관을 통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의 세계관은 구체적인 발화를 통해 개진됨이 특징이다.<sup>22)</sup>

소설에서 나타나는 작가와 등장인물간의 언어양상은 發言 속의 發言(speech with speech), 發話 속의 發話(utterance with utterance)이다. 동시에 발언에 관한 발언, 발화에 대한 발언으로 나타난다. 예를들어 소설에서 인용자(주로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함축된 작가)는 타자의 발화(세상사람들의 상식적 견해, 등장인물, 화자)를 부분적으로 등장시켜 인용자의 문장의 통사론적, 구성상, 문체상 장치에 적합하며 동시에 타자의 발화가 갖고 있는 본래의 독자성을 갖도록 (이러한 독자성이 없으면 타자의 발화가 포착되지 않는다) 통사론적, 구성상, 문체상의 규범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인용자가 타자의 말을 수용하는데는 몇가지의 방식이 있다.

첫째, 타자의 말을 고스란히 확실히 유지하려는 경우이다. 이를 흔히 문체 혹은 비개성적 직접화법이라 한다.

21) Todorov, 앞의 책, p.87

22) 여기에서 말하는 작가는 실제작가가 아니라 함축된 작가를 의미한다.

둘째, 인용자의 맥락이 인용된 타자의 말의 自己完結的인 폐쇄된 상태를 파괴, 분해하려고 하며 그것의 경계선을 제거하는 경우 회화적 문체 혹은 자유간접화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타자의 말이 그대로 전달되기보다 인용자에 의해 개성화된다. 즉 타자의 말이 그대로 전달되기 보다 인용자에 의해 개성화된다. 즉 타자의 발화가 갖는 여러 측면에 대한 감각이 섬세하게 분화된다. 이때 그 受容은 발화의 지시대상적 의미나 그것의 진술뿐만 아니라 언어표현상의 모든 언어적 특징들도 또한 포함된다. 다음은 세상사람들의 상식을 담고 있는 언어가 작가의 의도가 담긴 언어에 의해 개성화되는 경우의 몇가지 예이다.

(예 1).....만찬의 성대함에 대한 묘사.....

오, 얼마나 Merdle은 멋진 사람인가, 위대한 사람이며 영주인가, 얼마나 축복받고 질투날 만큼 능력이 있는가 — 한마디로 얼마나 부자인가!

(예 2) 사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내놓은 놀라운 공로를 세운 사람이 평민으로 남아 있는 고통을 겪을 수 없다는 것이 널리 이해되었다. 23)

윗 글에서 ㉓는 세상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㉔는 작가 자신의 말이다. 여기서 작가의 말은 사회적인 가치판단을 지배하는 사고, 신념, 감정의 경직성을 약화시킨다. 이때 인용자의 맥락은 그 자신의 억양인 유모어, 아이러니, 사랑이나 증오, 열정이나 경멸을 지니면서 유연하게 타자의 말 속에 스며든다. 이런 유형의 화법 중에는 인용자의 맥락이 타자의 말에 의해 해체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언어의 주도적인 역할이 타자의 말로 옮겨지는데 타자의 말은 그것을 둘러싼 인용자의 맥락보다도 강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된다. 소설의 경우 이러한 것은 종종 작자를 대신하는 서술자(narrator)의 등장에 의해 작품 구성 속에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서술자의 위치는 유동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서술자는 작품에 묘사된 인물들의 언어로 말한다. 또한 등장인물의 주관적 입장에 대해서 보다 큰 권위를 갖는 보다 객관적인 세계를 대치해 보는 것이 서술자로서는 불가능하다. 24)

소설에서 인물들은 자신의 행동과 담론 속에서 구체화되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가진다. 이들이 가진 사회적 異質言語(heteroglossia)는 인물들의 직접적 언술, 대화에서 소설 속으로 융합된다. 이들의 가치관은 작가의 의도를 굴절시키며 소설 전체의 의미에 영향을 준

23) M.M.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Univ of Texas Press, 1981. pp. 303-331

24) ミハイル・バフンチ(北岡誠可 譯), 言語と文化の記號論 (新時代社, 1980), pp. 239-368

다. 독자는 소설 속에 재현된 구체적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인물들의 언술들을 듣는다. 이때 그 인물들이 가진 가치관도 동시에 독자에게 파악된다.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personality는 물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말의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그때 누가 보고 어떤 표현과 흉내로 말하며 억양은 어떠한가? 그런데 소설은 現實再現, 總體性 表現의 특징상 언술 속에 있는 사회적 이질언어를 파괴하지 않으며 언어특징과 言述態度(speech mannerism, 잠재적 화자, 개성)를 무시하지 않는다. 작자는 이런 구체적 언어특징들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윤색하거나 왜곡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대화적인 것이다.

이처럼 소설에는 다양한 사회적 언술유형과 개인의 목소리가 조직화되어 있는데 참고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 ① 직접적 권위적인 문학—예술적 서술
- ② 일상적이며 구술적인 서술
- ③ 반(半)문학적인 일상서술(편지, 일기 등)
- ④ 문학적이지만 예술외적 권위적 언술(윤리, 철학 혹은 과학적 진술, 웅변술)
- ⑤ 개인화된 인물들의 언술

소설은 이런 종속물들을 혼합하여 작품에 통일시킨다. 하나의 국가 언어라도 사회적 방언, 전문용어, 목적언어, 세대의 언어 등으로 成層化되는 것은 장르로서의 소설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소설은 언술유형의 사회적 다양성과 그런 상황하에서 넘치는 개인의 목소리에 의해 그 안에 서술되고 표현되는 대상과 사상의 세계의 총체성을 편집한다. 장르 속에 삽입된 작가의 언어와 화자의 언어, 등장인물의 언어는 이질언어(heteroglossia)가 소설 속에 들어가게 하는 구조적 통일(compositional - unities)이다.<sup>25)</sup>

## 2. 소설교육의 한 방향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설의 언어가 가지는 의미는 언어 자체의 창조적 의미 생산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담론의 집합체라는 데에 있다. 소설의 언어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치밀하게 구조화되거나 정선된 다양한 사회적 언술 유형과 개인의 목소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언어와 구별된다. 소설의 언어 속에는 인물들이 타자의 말을

25) The Dialogic Imagination, pp.314-342.

수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들어 있는데 이 방식의 양상은 각각의 인물들의 세계관, 사고유형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술한 직접화법, 자유간접화법, 간접화법 등은 인용자와 타자의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그러한 양상의 유형화로 설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담론의 진술방식은 발화자들의 세계관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예를 들어 비개성적 직접화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용자의 세계관이 타자의 세계관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거나 고착된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속성때문이다.

소설은 담론으로서의 언어가 세계관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는 언어예술이다. 즉 소설을 통해 우리는 추상적 객관주의의 언어관을 벗어나 진정한 language 중심의 언어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그러나 소설이 가지는 이러한 의의는 그간 소설교육을 논하는 자리에서 작가의 세계관, 등장인물의 세계관을 언어양태와 분리하여 논의함으로써 희석화되어 왔다. 세계관을 '텍스트와 사회와 독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통로'로 바라보는 관점<sup>26)</sup>이나 '소설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설에서 획득한, 혹은 여전히 획득하지 못한 총체성에 대한 지향음, 작품을 매개로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그 핵심적인 개념을 전형에서 찾고 있는 관점<sup>27)</sup>은 소설이 지니는 이러한 속성을 간과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sup>28)</sup>

담론으로서의 소설의 언어적 성격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분석해 내는 일은 본고의 범주를

26) 박대호, 소설의 세계관 이해와 그 문학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27) 김상옥, 현실주의론의 소설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28) 박대호, 김상옥의 관점을 이러한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본고가 의도하는 문제의 식에서 연유하지만 다음과 같은 필자 나름의 비판적 견해도 작용하고 있다.

첫째, 문학교육의 위상설정에 관한 문제. 필자가 판단하는 바, 현재의 상황은 주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교육의 위상설정에 있어 정체성 확보라는 당위성을 앞세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언어'와 '가치관'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대립될 수 있는 실체임을 주장하는 일종의 '선긋기'가 아닌 상호접근의 태도가 요구되는 단계라 판단된다. 박대호의 경우는 논문의 서두에서 이러한 접점을 상정하고는 있지만 실제 논의의 과정에서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국어교육 내에서의 영역의 분리/미분리 문제는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는 사범대학의 위상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방법론과 교육적 적용의 괴리 문제. 첫째의 문제를 접어두고, 문학교육의 정체성을 상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두 논문은 방법과 적용에 있어 자의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에 그러한 시도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유효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박대호의 경우 세계관 이해의 궁극적 도달점이 이원적이고 대립적인 실체로서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과정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낳고 있다. 김상옥의 경우는 '전형'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특히 리얼리즘 미학의 중심범주로서의 특수성과 그 특수성의 구체화로서의 전형의 속성)에서 비롯된 '전형(성)찾기'로 수업 과정이 도식화됨으로써 논자가 기대하는 바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딜레마를 보여 주고 있다. 두 논문은 논자들이 기존의 문학교육의 한계라 하여 경계하고 있는 일방적 지식전달의 과정으로 되돌아갈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벗어나기에 또다른 기회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부분적이지만 그 방향성의 한 요체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에 잠시 하나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인물과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문제삼는 측면에서 <춘향전>을 논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도달점은 이도령의 세계관과 방자의 세계관을 비교할 때 이도령이 조선 후기의 봉건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데 비해 방자는 이와 대립되어 있는 평민계층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 논의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문학교육의 장에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언어 이외의 지식들—작품의 역사, 사회적 배경, 작가의 전기적 사실, 세계관 등--을 가르치려면 문학을 예술교과로 독립시켜 가르쳐야 한다는 반론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지식들을 표현하기 위해 소설이 특정한 언술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임을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반론에 대응할 수 있다. 즉 언술구조 자체 속에 작품의 역사, 사회적 배경, 세계관이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비단 문학의 언술구조 뿐만 아니라 모든 담론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춘향전>을 논할 때 방자라는 평민계층의 사고방식이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방자의 언술의 특징인 한문어투의 회화화와 자유간접화법은 양반 계층의 가치관, 한문문화에 대한 Parody인 셈인데 이 언술의 양태는 <봉산탈춤>의 말뚝이에게서 그대로 나타난다. 방자와 말뚝이는 동일한 기층 민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역으로 풀이하면 <춘향전>의 언술구조는 등장인물의 세계관의 대립관계를 명확히 알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해독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IV. 結 論

문학의 언어는 일상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설령 그 언어가 시적 기능에 치중할 때에도 그것은 대상에 있어 記標와 記意의 관계에 대한 喚起,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언어의 창조는 아닌 것이다. 또 시적언어가 일상언어로부터 '逸脫'했다고 느끼는 것은 規範(norm)언어에 대한 對他意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시적 언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상언어의 존재를 환기시킨다.

문학의 언어는 소설의 경우 이런 시적 기능에 치중하지 않는다. 소설의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들이며 문체는 他者の 言語受容方式에서 나타난다. 소설은 이질언어(heteroglossia)를 통합하고 조직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심오한 형태이다.

첫째, 장르의 통합. 소설은 예술적(삽입된 단편, 서정적 노래와 시, 극적 장면 등)이거나 예술외적(일상, 수사적, 학문적, 종교적 장르 등)인 것 모두의 다양한 장르의 통합을 허용한

다. 이런 통합된 장르들은 소설 내에서 문체론적 特異性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조의 통일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소설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르인 일기, 여행기, 편지 등은 소설 형식(告白소설, 일기소설, 편지소설)을 결정해주기까지 한다. 소설은 언술 속에 있는 현실에 들어가기 위해 이런 장르들을 이용하며 이들이 소설에 들어갈 때 그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소설의 언어를 다양화시킨다.

둘째, 소설을 소설로 만드는 요소는 말하는 사람들(내포작가, 화자, 등장인물)과 그들의 담화이다.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 사회적 계층성이 용해되어 있다. 독자는 이들 이질언어들이 충돌하고 융합되는 과정과 방식에서 어떤 사고, 세계관 혹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가? 각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담론을 통해 어떻게 동화되는가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세계관을 가르치는 문제는 정보의 차원이 아니다. 문제는 가치관, 세계관을 소설의 언어와 분리시켜 가르쳤던 종래 문학교육의 오류에 있다.

지금까지의 소설교육은 소설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텍스트 밖의 실제작가의 행적을 신비화시키거나 또는 텍스트 밖의 당대 상황을 내용적으로 나열해 왔다. 이런 교육방식이 문학이 언어교육과 무관한 단편적 지식을 주입시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설은 구체적 맥락 속에서의 담론의 예들이 종합적이고 핵심적으로 조직된 언어예술이다. 문제는 시대의 가치관이 어떤 담론구조로 표출되는가를 파악할 때 언어예술로서의 소설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국어교육이 담론의 교육이라면 소설교육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 典範을 보여줄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丘仁煥 외, 文學教育論, 三知院, 1988
- 金大幸, “國語교육과 『言語.使用.教育』”, 서울大學校 師大論叢 40輯, 1990
- 金大幸, “言語使用의 構造와 國語教育”, 國語教育 71.72輯, 韓國國語教育硏究會, 1990
- 金尙郁, 현실주의론의 소설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 金恩典, “國語교육과 文學教育”, 서울대학교 師大論叢 19, 1976
- 盧命完, 國語教育論, 한샘, 1988
- 朴大鎬, 小說의 世界觀理解와 그 文學教育的 適用 硏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 朴壽慈, “國語科教育에 대한 體系的 接近의 試論”, 國語教育學硏究 1輯, 國語教育學會, 1991

- 李庸周, “國語教育에 있어서의 文學의 位置”, 鳳竹軒 朴鵬培博士 回甲紀念 論文集, 培英社, 1986
- 李庸周, “國語教育의 根本的 改革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師大論叢 39輯, 1989
- 崔永煥, “國語教育學 定立의 方向”, 國語教育學研究 1輯, 國語教育學會, 1991
- 쉬클로프스키 외 (韓基燦 譯),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月印齋, 1980
- 빅토르 어얼리치(박거용 역), 러시아 形式主義, 문학과 지성사, 1983
- M. 바흐진, V.N. 블로쉬노프(송기한 역),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1987
- 츠베탕 토도로프(최현무 역), 바흐진: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글방, 1988
- M. M.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Univ of Texas Press, 1981
- ミハイル. バフチン(北岡誠司 譯), 言語と文化の記號論, 新時代社, 1980



**Abstract**

Problems of Language in the Teaching of the Novel

Kim, Dong-hw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anguage of literature is closely connected with natural language. Even if the language lays emphasis on the poetic function, that is not the creation of language but the awakening to the relation between 'signifiant' and 'signifie' in object, the support to a new recognition of object. And it is derived from the oppositional consciousness for a normal language that one feels poetic language deviated from the natural language. Poetic language continuously awakes the existence of natural language.

The language of literature, especially in novel, does not lay emphasis on the poetic function. The language of novel is the ordinary language which we use daily, but a problem derived from the other's mode of language-acceptance. Novel is the most fundamental and profound genre which unify and organize the Heteroglossia.

Up to the present, the teaching of the novel has shown the tendency which holds the real-life achievements of the author sacred, or which displays the phases of the times unrelated to the actual text. This method is the main cause of the complaint that literary education cramming the fragmentary knowledge non-related with language education.

But the 'sprachliche Kunstwerk' of the novel should be organized synthetically and essentially in more concrete internal connections. The Problem is that through what kind of the discourse-structure, the value of the times is revealed.